

보험계리사 시험 -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쪽

1. 다음 중 甲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 ① 甲이 무진단계약의 청약과 함께 월납보험료 10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자의 승낙을 기다렸으나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1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甲이 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고 7일만에 인수거절의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10일째 되는 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③ 甲이 신체검사가 필요한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월납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암진단을 받은 경우
- ④ 甲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며 보험료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보험자가 낙부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다음 날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특히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상법상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해당약관상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
- ③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약관조항
- ④ 상법 제726조의4가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을 풀어서 규정한 약관조항

3.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험변경 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위험변경 증가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②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계약체결시 보험자가 약관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③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
- ④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하였다는 점 및 사고의 외래성과 손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4.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직업을 속인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 직업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였던 한도 이내로 자동감축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라면 무효이다.
- ② 한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부정취득목적·고지의무 위반·사기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 ③ 고지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더라도 약관의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 ④ 냉동창고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시킬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5. 다음 예문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망 또는 제1급 장애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甲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제1급 장애발생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또한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 ① 보험사고는 계약체결시에 불확정적이어야 하는데 甲은 필연적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애로 이어질 질병의 확정진단을 이미 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알았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질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고의 주관적 불확정으로 소급보험이 인정된다.
- ③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사고 그 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고지의무 위반만 문제될 수 있다.
- ④ 甲의 질병은 보험기간 중에 진행되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간에 보험금지급의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③ 보험사고 발생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책임보험에서 약관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7.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②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③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④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서명 등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8. 다음 중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낸 지급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다.
-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약관대출규정은 상법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장차 지급할 보험금 등의 선급으로 본다.
- 보험자의 약관대출금채권은 양도·입질·압류·상계의 대상이 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9. 甲은 자기가 소유한 보험가액 1000만원인 도자기의 파손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400만원, 丙보험회사와 600만원, 丁보험회사와 1000만원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각각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도자기가 사고로 전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 ① 乙보험회사는 2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 ② 丙보험회사는 6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③ 丁보험회사는 5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 ④ 甲이 丁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乙보험회사와 丙보험회사는 각각 400만원, 6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10. 상법상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③ 해상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그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11.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보험에 관한 규정은 손해보험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③ 집합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 상법상 해상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4.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 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성명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이 된다.
- ② 丙은 甲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보험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丙은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甲에 대하여 보험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丙은 甲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5. 동일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②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 등 계약적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 나.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급격과 우연성은 충족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다, 라

17.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된다.
-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며, 이때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18.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생명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이다.
- ②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보험증권은 회사에 대하여만 교부되지만,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되지 못한다.
- ③ 구성원이 단체를 퇴사하면 보험료를 계속납입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지위는 상실한다.
- ④ 회사의 규약에 따라 단체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필요 없지만,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19.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③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이 재보험자에 이전한다.
- ④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자기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이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을 원보험자와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20.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1.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합산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납입자본금
나. 이익잉여금
다. 자본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영업권

- ① 가, 나
- ② 가, 나, 다
- ③ 나, 다, 라
- ④ 다, 라, 마

22.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
나. 화재보험
다.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라. 자동차보험
마. 상해보험
바. 보증보험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가, 라, 마, 바
- ④ 나, 다, 라, 바

23.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다.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24.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정관 기재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나. 명칭
다. 회사의 성립년월일
라. 기금의 총액
마. 기금의 각출자가 가질 권리
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① 가, 나,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마, 바

25.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를 제외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입사청약서에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 각출자의 이름·주소와 그 각자가 각출하는 금액,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등도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속한다.
④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의 경우, 청약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6.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임원 또는 직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을 위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서 보험계약자 측에 지급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27.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을 모집할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계약자의 연령
나. 연간 수익 및 연간 수익이 보험료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다. 보험가입의 목적
라. 변액보험계약 가입 여부
마. 집합투자증권 가입 여부
바. 생명보험의 가입 여부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라, 마, 바
④ 나, 다, 마, 바

28.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금액이 큰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보험중개사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한 계약전환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보험안내 자료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2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보험회사는 그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신고로써 승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 나. 보험수리업무
- 다. 보험대리업무
- 라. 보험계약 체결 및 대출 업무
- 마.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 바. 손해사정업무
- 사.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 ① 가, 나, 다, 마
- ② 나, 다, 마, 바
- ③ 다, 라, 바, 사
- ④ 가, 마, 바, 사

3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후순위차입금, 미상각신계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32.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회사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나, 다
- ④ 가, 라

33.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제외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업무를 할 수 있다.

35. 보험업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에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② 보험계리사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 ③ 상호회사의 청산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 ④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36. A회사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각 약정만료일에 퇴직하는 경우 A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 가. 갑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을은 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2. 1.에야 비로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
- 다. 병은 2018.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루 2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주 평균 2시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 라. 정은 주 40시간씩 2018. 10. 1.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회사가 낸 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다음 2019. 9. 1.부터 2020. 3. 31.까지 주 40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 마. 무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로 선임되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재임하기로 약정하였다.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37. B회사 인사담당자는 2020년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중 옳지 않은 발언은 무엇인가?

- 가.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 설정할 수 있다.
- 나. 두 제도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동일하다.
- 다. 어느 제도에 의하건 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연금의 최소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 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38.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과실로 누락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②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③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④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9.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고 사용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計理)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